

어느나라라도 신년은 큰 의미일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정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양력의 정월과 음력의 정월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음력의 정월을 가지고 큰 축제일 로 하고 있습니다.

양력의 정월 밤 12에 유명한 사람들이 종로 보신각에 있는 종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봄니다. 또, 그리스도교인을 교회에 불교인은 절에서 신년을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산에 오르거나 바다에서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정월을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합니다. 신년 아침에 함께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는 만큼 나이를 먹는다 라는 농담에 아이들은 몇그릇이라도 먹고 그 만큼 나이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 날은 한복이라는 설빔을 입고 가족과 친척에게 세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든지 “올해도 건강하세요” 등의 덕담을 합니다. 그러면 웃어른이 세배돈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선조에게 세배를 하고 이웃집이나 친척집에 갑니다. 한국의 신년은 어느 나라 에서도 그렇지만 한해(올해)도 행복하기를 함께 축복합니다.